

# 영국 낭만시의 특질

—영국 낭만시의 존재론적 인식론—

李 廷 鏞

(영문과 조교수)

## I. 머리말 및 시대구분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영국 낭만주의 시대는 1798년 부터 1832년 까지의 시간적 인 시대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처음을 1798년으로 잡은 이유는 워즈워스 Wordsworth와 코올리지 Coleridge가 공동으로 집필한 『서정 담시집』 *Lyrical Ballads*이 나온 해가 1798년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끝 해인 1832년에는 월터 스코트 Walter Scott가 서거한 해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선거법 개정법안(The Reform Bill)이 영국의회를 통과한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대 구분을 했지만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어느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분명하게 시대 구분을 했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확연한 시대구분은 편의에 의한 것일 뿐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념 형성을 하는데 편리하고, 또한 큰 무리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영국에서의 낭만기는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대단한 격동의 시기였으며, 또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특질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문학의 연구 자체가 그러하듯이, 이 시기에 대한 특질을 살펴 봄에 있어서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고 귀납적인 방법을 써서, 서로 상이한 시인들에게 있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낭만시”라고 불리우는 시가 주종을 이룬 시기이다. 소설에서는 월터 스코트 등의 소설가가 있기는 하지만, 소설은 큰 몫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극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가 시를 주종으로 하는 시의 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이 시기의 주요 시인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시인으로는 윌리엄 블레이크 William Blake(1757~1827), 윌리엄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1770~1850), 새뮤얼 테일러 코올리지 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 조오지 고든 바이런 George Gordon Byron(1788~1824), 퍼시 비쉬 셸리 Percy Bysshe Shelley(1792~1822), 존 키이즈 John Keats(1795~1821) 등 여섯 명을 꼽는다. 또한 불란서 혁명(1789)을 경험한 블레이크, 워즈워쓰, 코올리지를 제 1세대(The First Generation) 낭만시인이라고 부르고, 불란서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시인들인 바이런, 셸리, 키이즈를 제 2세대(The Second Generation) 낭만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Ⅱ. 낭만주의의 발생동기

어느 하나의 문학 사조가 발생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여 하나의 두드러진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낭만주의 사조도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낭만주의 이전에 있던 사조와 낭만주의와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 1. 정치적인 배경

낭만주의 시대는 자주 엘리자베쓰시대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으로는 우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휴머니즘의 전통이 강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와 자발성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들에 반발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반발은 동력의 발전이 계기가 된 산업혁명의 시대인 1750년 쯤부터 시작되어, 그 뒤를 이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혁명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낭만주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혁명은 무엇보다도 1789년의 불란서 혁명이다. 불란서 혁명 이전에도 1775년의 미국의 독립전쟁 또한 커다란 혁명이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영국에 대항하여 싸워 얻은 1776년의 미국의 독립은 여러 의미에서 구라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혁명의 물결은 이제까지 문학에서도 성숙되어 온 혁명적인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워즈워쓰와 코올리지가 1798년에 공동으로 펴낸 『서정 담시집』이며, 1800년의 2판과 1802년의 3판의 서문 *Preface*은 바로 문학의 새로운 역사의 장(章)을 여는 혁명적인 새로운 문학의 “선언서”(manifesto)이다.

불란서 혁명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제도는 절대 군주제였다. 절대 군주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위와 아래라는 상하(上下) 관계 속에서만 존재했다. 위로는 기독교의 신이 있고, 신의 아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세운 기독교가 있다. 물론 이 때쯤에는 천주교의 세력이 중세때처럼 막강하게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불란서에서는 아직도 절대 군주제는 세속적인 통치의 표상으로 존재해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교황의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대항하는 국가주의(nationalism)와 개인주의는 점점 그 힘을 더 해갔다. 이처럼 커가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드디어 불탄서 혁명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의 원천이 된 것이다.

위계질서가 확립된 천주교와 절대군주제 밑에서 사는 개인의 위치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기계의 부분품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지고, 개인은 단지 위에서 내려진 결정—그것이 천주교라는 교회의 조직이건, 또는 절대 군주제라는 세속적인 통치 형태이건 간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요되고 결정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순전히 수직 관계(vertical relationship) 위에서만 운영되던 사회관계는 차츰 차츰 수평 관계(horizontal relationship)로 변화의 과정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대표적인 시발점은 멀리는 루터 Luther의 종교개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종교개혁은 이제까지의 교회를 매개로 한 구원관을 일격에 타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까지의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기독교적인 구원은 교황(또는 교황으로 대표되는 교회 조직 및 성직자)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교황은 예수를 지상에서 대표하는 존재로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또는 세속적인)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교회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인간은(또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착한 행동을 거기에 더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루터의 새로운 교리는 이 두 가지의 천주교회의 근본 교리를 완전히 뒤엎고 말았다.

우선, 교황의 절대 권력과 그의 교회는, 루터가 주장하는 “신앙만으로써의 구원”(salvation by faith only)에 의하여 정당성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경전을 해석하는 권한은 교회의 성직자에게만 주어져 있었고, 라틴어로 쓰여진 Vulgate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금지되어져 왔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하였으며, 기독교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자유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 해석 독점권이 없어지고, 또한 구원은 교회를—또는 교황이나 성직자를—통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까지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던 각자의 착한 행위에 의한 구원도,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혁신적인 신앙 개조의 영향은 서양 사람의 사고 방식 내지는 인식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이 몰고온 여파가 전적으로 긍정적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수긍이 된다. 즉, 개인 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은 보편성이 결여돼 있으며 신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강조는 주관적인 신앙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교회라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또는 칼빈이즘 Calvinism과 같은 극단적인 운명론이 대두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제자로서 그리고 착취자로서 이제까지 군림하던 교황과 그

의 거대한 교회 조직은 존재이유를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조금은 장황할 정도로 살펴본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 개혁 사상은, 불란서 혁명과 같은 정치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흐름의 바탕이 돼 왔던 것이다. 불란서 혁명은 그러므로 단지 일회적인 정치적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조직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위를 차지 하던 조직의 권위는 무너지고,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위 아래의 위계질서로만 인식되던 인간 관계가 횡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가치를 갖는 인간끼리의 만남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는 왕과 평민, 또는 성직자와 신도라는 상하 및 종속관계에서가 아니고 똑같은 권리와 가치가 있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의 흥분을 다음의 인용에서 느낄 수 있다. 크레인 브린톤 Crane Brinton은 그의 『혁명의 10년 : 1789~1799』 *Decade of Revolution, 1789~1799*이라는 저서에서,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헨리크 스테픈스 Henrik Steffens의 어릴때의 회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스테픈스]의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코펜하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아들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 인생에 있어 낙오자가 된다 해도 자신들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제부터는 “가난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생존 경쟁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겠으며, 똑같은 수단과 똑같은 처지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his father came home one night in Copenhagen, gathered his sons about him, and with tears of joy told them that the Bastille had fallen, that a new era had begun, that if they were failures in life they must blame themselves, for henceforth “poverty would vanish, the lowliest would begin the struggles of life on equal terms with the mightiest, with equal arms, on equal ground.”<sup>1)</sup>

그러나 이처럼 모든이를 큰 기대에 부풀게 한 불란서 혁명이 그 큰 기대만큼이나 큰 좌절을 안겨 주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런지? 불란서 혁명이 성공한 후 몇 년도 안돼서 나폴레옹이 다시 전제 권력을 잡게 되고, 불란서 혁명이 불러 일으킨 부푼 기대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제 1세대 낭만 시인들은 이러한 부푼 기대가 산산히 깨지는 아픔을 맛보고, 이를 극복하고 시로 승화하여 작품화 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재창작을 하게 된다. 특히 위즈위쓰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불란서 혁명의 급변은 개인적으로 큰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는 아네트 발롱 *Annette Vallon*이라는 불란서 여성과의 사랑으로 캐롤라인 *Caroline*이라는 딸이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영국에 선전포고하는 바람에 그는 불란서에 갈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엄청난 좌절과 충격을 승화하여 시로서 작품화 한

1) David Perkins, ed., *English Romantic Writer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7), p. 3에서 재인용.

것이 그의 유명한 “서시”(The Prelude)이다. 물론 불탄서 혁명의 열망과 좌절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제 2 세대의 낭만 시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셸리는 이러한 충격을 시로 승화하여 그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에 담고 있다. 사실, 낭만시의 정수는 이처럼 부탄 혁명에의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좌절의 승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공존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 2. 철학적 및 사상적 배경

낭만기 문학의 배경을 이룬 철학과 사상은 어느 획일적인 한가지 사조나 사상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서로 다양하고, 어느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철학 체계의 총화였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러한 서로 상충되고 혼란스런 사상체계들은 지극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혼돈은 또 한편으로는 낭만 시인들에게 건강한 활력소를 공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 당시 영국에서 풍미하던 경험주의 empiricism 철학은 순전히 인간의 감각에 의하여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는 철학체계인데 반하여, 독일에서 들어온 Kant의 관념주의 철학 idealism은 인간의 직관 intuition에 중점을 두는 철학 사조였다. 이러한 두개의 서로 상충되는 사조가 서로 투쟁하거나 배척되지 않고, 공존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철학 사조가 합성 통합되어 유기체 이론(有機體理論: organicism)으로 지양(止揚: sublation; 독일어로는 Aufhebung이라고 함) 됨으로써 낭만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철학사조이외에도, 루소 J.J. Rousseau나 윌리엄 고드윈 William Godwin 등은 영국 낭만주의의 형성에 있어 커다란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다음에서 이같이 잡다하고 복잡다기한 철학과 사상적 배경을 한 가닥씩 풀어 보기로 한다.

### 1)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empiricism)

경험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영국적인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험주의는 존 로크 John Locke(1632~1704), 조지 버클리 George Berkeley(1685~1753), 그리고 데이비드 하틀리 David Hartley(1705~1757)를 주축으로 하는 일련의 철학자들에 의하여 토대가 굳건해졌다. 물론 이들보다 먼저 태어났던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1561~1626)과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1588~1679)도 경험주의 철학의 효시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근본 가정은 플라톤적 관념론(idealism)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지식은 선형적(a priori)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관념론에서는 인간은 타고 날때부터 어떤 개념의 틀을 갖고 있으며, 이 틀들은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 개발되고 분화된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본래부터 아무런 선형적인 관념의 틀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white paper, 라틴어로는 tabula rasa) 상태로 태어났다는 관점이다.

즉, 관념론자들과 이성론자(rationalist)들은 우리는 생득적으로 어떤 관념들을 타고 났다고 보고, 이렇게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관념들을 생득적 관념(生得的 觀念, innate ideas)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관념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고 보는 경험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상과 사물을 보는 유일한 척도는 경험과 감각일 수 밖에 없다.

관념론자들이 관념에서 시작하여 외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연역법(deductive method)을 썼던 데 반하여, 경험론자들은 개개의 사실에서 하나의 공통되는 법칙을 추출해내는 귀납법적인 접근방법(inductive approach)을 썼다. 전자(즉, 관념론자)가 수학과 같은 순수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후자 즉, 경험론자들은 실험에 기초한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외계의 사물이란, 인위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관념으로 포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나 하나의 사물의 관찰에 의하여 파악되기 때문이다.

경험론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대단히 극단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론자들의 이론을 전적으로 수긍하거나, 또는 그와는 반대로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경험론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긍정적인 면의 첫번째 항목으로 우리는 경험론자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의 우위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복잡하고 커다란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 이것을 통째로 보지 않고 조그만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계에 대한 경험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로크는 그의 『인간의 이해에 관한 한 논문』(*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0)에서 주장하고 있다(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겠지만,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실험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물의 본질은 우리의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며 (*esse est percipi*),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사물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낭만주의의 개성 존중 내지는 개성우위 사상은 여기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낭만주의에서 보게 되는 만인 평등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경험론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경험론적인 철학을 관념론과 비교할 때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경험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생득적인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생득관념에 대한 가정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형질을 갖고 있다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인간은 주관론(subjectivism)이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셸리의 “알래스터” *Alastor*라는 시에서 보게 된다. 극단적인 유아론이나 주관론은 타인과의 접촉이나 의사소통을 기피하여, 개인의 자의식을 깊게 한다. 이 경우, 개인은 타인이나 외계와의 타협과 융화를 거부하여, 깊은 우수와 회의에 빠져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자의식의 심화는 자기도취(narcissism)나 자기 과신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2) 초월주의(超絶主義 transcendentalism)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주의가 극단으로 갈 경우 예기치 않은 많은 폐해를 불러 일으킨다. 경험주의의 이러한 폐단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초월주의이다. 초월주의의 요점은 우선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되어지지 않는 영역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선형적인 요소(*a priori* elements)로는 의지의 자유, 신, 그리고 영원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겪는 무상(無常)한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요소들이다. 이들은 단지 우리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형적인 직관(*a priori* intuition)에 의해서 가능하다. 직관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느껴지거나, 귀납법적인 접근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나 영원의 문제에 생각을 돌릴 때에는 우리 주위의 사물의 관찰에 것처럼 유용하다고 느꼈던 감각이나 인식은 별로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초월주의의 연원은 여러 갈래에서 오고 있다. 멀리는 플라톤의 관념론이 있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新플라톤주의 철학(Neoplatonism)이 있다. 그 이외에도 개인이 겪는 신비주의적인(mystical) 경험(Blake, Wordsworth의 경우) 등이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철학 사상의 영향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낭만주의에 영향을 미친 초월주의적인 철학의 흐름은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 관념주의 철학(German idealism)이다. 낭만주의 비평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코울리지의 경우, 초기에는 경험주의에 크게 기울었으나, 뒤에는 칸트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특히 칸트의 주요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Critique of Pure Reason, 1781*)이나 『실천 이성 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1788*)에 나타나는 “선형적 이성” *a priori* reason이란 경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이성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러한 순수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을 열두 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경험과는 상관없이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경험에 적용된다.

이러한 관념론적인 접근은 경험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인간의 사유영역을 확대했다는 커다란 공헌을 했다. 즉,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신적인 영역에 까지 존재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론이 경험론의 취약점을 보완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커다란 약점이 있음을 지나칠 수 없다.

그 첫째는, 관념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념론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二元論的, dualistic)인 접근방법이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는, 실제적인 현재의 세계와 관념적인 영원한 세계라는 두 개의 개별적인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관념론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념론에 의하면, 우리는 영속적인 가치가 내재해 있지 않은 변화무쌍한 현상세계에서 삶을 유지하는 셈이 된다. 이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위하는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몰수하는 결과가 된다.

관념론이 갖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결점은 역동성이 무시된, 생성의 세계(the world of becoming)가 아닌 정체돼 있는 존재의 세계(the world of being)가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가 영위하는 생동하는 삶은 활력이 빠지고, 추상화된, 움직임이 없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모순을 안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경험주의나 관념주의는 모두 극단적으로 이론을 전개시킨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현실과는 유리된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남게 된다. 이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경험주의 철학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감각기능을 상대적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주의 철학은 인간을 단지 감각의 노예에 머물게 한 결과만을 초래했다. 관념론 또한, 우리의 감각을 넘는 경지로까지 인간의 존재 영역을 넓히긴 했으나, 그 결과 인간은 전체로 통합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분열되고 부분적인 존재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점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의 큰 과제였으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자들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 3) 유기체론(organicism)

이와 같이 경험론의 이론적인 틀 속에 갇혀진 인간이 감각의 노예 상태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관념론적 철학관은 현실을 관념의 하위 구조로써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관점은 인간의 인식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점은 있으나,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합시킴으로써 인간의 인식과 존재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한 것이 유기체론(organicism)이다.

유기체론에서는, 관념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인 정체된 실체(being)의 본질과, 경험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인식의 감각적인 측면을 합성·고양시킨다. 그러므로 유기체론에서는 추상적이고 정적(靜的)인 존재(being)가 생성하고 움직이는 생성(becoming 또는 process) 원리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 속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자라는 나무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나무의 추상적인 존재 원리는 그 나무의 씨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씨가 그저 추상개념이나 존재 원리로써만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성장과정 속에서



실현된다. 이 경우 씨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나무의 추상화된 보편원리로서의 존재(being)는 시간이라는 매개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과정은 그러므로 보편적인 성장 및 존재원리가 구체적이고 특정적이며 일회적인 성장과정과 합쳐진 총화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보편원리로서의 존재(being)와 성장과정(becoming)은 서로 따로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전체의 다른 두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 존재와 성장은 이 경우 서로 다른 측면이기는 하나 서로 의존적이며(interdependent) 서로를 서로 속에 내포하는 것이다(interpenetrating). 즉, 성장속에 존재원리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존재원리가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는 과거와 미래, 시간과 영원, 현실세계와 관념세계 등 관념론에서 이분법적(dualistic)으로 갈라졌던 측면들이 통합되고 합성된다. 그러므로 성장은 내포된 관념의 발전과정이며, 관념은 또한 완전성을 전제로 한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므로, 성장 자체가 완성과 합일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유기체론은 경험론적인 가정이나 관념론적인 철학을 통합하고 수용하여, 그 속에서 이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철학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실로 당면적 상상력의 토대가 된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상상력을 논의할 때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론적인 철학이나 또는 관념론적인 철학은 사실상 한 가지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설명체계로서, 이 두 이론은 자기 자기 이론의 틀에 맞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경험론과 관념론은 똑같이 이론의 틀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두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경험론은 유물론적 결정론(materialistic determinism)에, 그리고 관념론은 유심론적인 결정론(idealistic determinism)에 각각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철학적인 사상은 결국에는 닫혀진 사상체계(closed system)로 머물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철학 체계를 합성하여 수용하고 있는 유기체론은 이 두 체계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being과 becoming이 서로 동시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본질의 상실없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열려진(open) 가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어느 한가지 요소만을 강조하여 이에 맞지 않는 다른 요소는 제외시키는 배타적인(exclusive) 사상의 조직체계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그 안에서 역동적(dynamic)이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까지 한 창조의 질서를 생성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inclusive) 생동하는 생성원리는 생명력의 무한한 발전을 믿고, 개체는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며, 무한과 영원으로까지 발전 가능한 현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현실과 이상, 현상과 관념은 서로 반대되는 대립항이 아니고, 전체 속에서 공존하며, 또한 서로 속에 내포된(interpenetrated) 실체이며, 존재이다.

#### 4) 루소(J.J. Rousseau)

지금까지는 주로 사상적인 배경 내지는 철학적인 영향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인물의 영향을 보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루소(1712~1778)이다. 그는 일련의 저작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펴 나갔다. 그의 사상을 다음에 몇 가지로 간추려 본다.

우선 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은 인간은 자유스럽게 태어났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1762)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또한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은 편의상 자유롭게 동의하여 정당한 주권에 예속되기를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대가는 공동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며, 아무도 자유스러운 개인을 억압하여 강제로 속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우리 각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로 어느 정치제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는 역설적인 의미로 볼 때, “자유스러기 위하여 강요당”하는(*forced to be free*)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noble savage*”의 개념이다. “*noble savage*”란 문명에 때문지 않은 천진 난만한 원시인을 이른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착하고 행복하다. 이러한 자연의 요소에 문명이라는 인위적인 요소가 오염되어 인간은 타락하고 추하게 되어 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유(思惟)가 아닌 직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우리가 낭만주의에서 보게 되는 자연과의 친화와 직관에 의한 생활은 바로 루소의 이와 같은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그가 예로 드는 대표적인 사회악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우리가 가장 착하고 행복한 처지가 자연속에서 사회와 문명의 때가 묻지 않고 사는 생활이라면, 자연 어린이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어린이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단지 어른의 축소판이 곧 어린이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그의 개성과 실체가 인정되지 못했다. 루소에 이르러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형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개성과 독자성을 가지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낭만시에서 자주 보는 어린이의 이미지는 루소의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가장 훌륭하게 교육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는 교육이란 어른의 축소 모델인 어린이를 어른들의 규범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이제 어린이의 개성이 인정되고, 또한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린이의 상태라는 것이 알려졌으므로, 당연히 인간의 이상적인 교육이란 어린이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자질을 충분히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어린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킴으로써, 그의 지능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워즈워스가 그의 “*Intimations Ode*”에서 어린이를 “축복받은 예견자” *Blessed Seer*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루소의 발상과 궤를 같이한다.

5) William Godwin(1756~1836)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한 사람은 고드윈이다. 그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 사상가였으며, 공리주의자(utilitarian)이기도 했다. 후에는 셸리의 장인이 된 사람으로, 셸리 자신도 본래부터 급진적이고 이상에 불타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의 장인 고드윈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드윈은 『정치에 있어서의 정의와 그것이 도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구』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and Its Influence on Morals and Happiness*라는 좀 긴 제목의 저서를 1793년에 출간했다. 이 책은 당시의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낭만주의 시인 및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 저서에서 정치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전개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권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에 그의 중요한 몇가지 언급을 번역하여 인용한다. (다음은 Leonard M. Trawick, ed. *Backgrounds of Romanticism*<sup>2)</sup>에서 인용한 것이며, 인용 뒤에 페이지수만 적는다.)

정부는 불의(不義)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긴 것인데, 반대로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유혹을 제공한다(p. 192).

재산권의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고 악화시킴으로써, 정부는 해로운 탐욕을 조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절취와 사기를 하도록 충동한다(p. 162).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행동을 제는 진정한 척도는 정의이다(p. 192).

정의는 최대의 쾌락과 행복의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한다(p. 193).

정의는 나 자신이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사를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봄으로써, 나 개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에 좌우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p. 193).

인간의 역사란 죄악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p. 194).

문명이 발달된 대부분의 구라파 국가에서는 재산권의 불평등이 대단한 지경에 이르렀다(p. 196).

여기서 고드윈의 생각들을 모두 정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사상은 아주 급진적이었고, 또 그는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믿는 진화론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고드윈의 급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사상이 그 시대를 풍미하던 혁명의 기운과 더불어 낭만주의 시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명백했다. 이처럼 불분던 시대개혁의 열기가 불란서 혁명에 의해서 구현되리라는 신념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보는 기쁨 그것이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집권에 의하여 산산히 깨진 이러한 꿈의 조각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난 낭만정신은 오히려 역설적이다. 불란서 혁명이 없었다면 낭만주의 정신은 싹트지 않았겠지만, 불란서 혁명의 실패 또한 낭만시의 정신을 열매맺게 한 계기가 됐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 Leonard M. Trawick, ed., *Backgrounds of Romanticism* (Indiana Univ. Press, 1967).

### 3. 낭만기 문학과 선행 문학 사조와의 관계

낭만기 문학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문학사조는 물론 아니다. 우리가 낭만 시인들이라고 부르는 시인들 자신들도 그들 자신은 낭만 시인들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조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낭만기 문학을 시작한 것도 또한 아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문학사가들이 일련의 시인들을 낭만시인이라고 부르게 됐고, 또 이 시대를 낭만기라고 부르게 되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낭만기문학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전에 있던 문학 사조와는 판이하게 구별되고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변혁이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낭만기 문학은 신고전주의(Neo-classic) 문학의 반동으로 생긴 문학사조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러나 이러한 변혁은 점진적이었다. 어제까지 신고전주의 전통의 문학 사조가 풍미하다가 다음 날 갑자기 낭만기 문학 사조가 도래한 것은 아니다.

낭만기 문학 사조와 신고전주의 문학사조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시대를 낭만기 전 시대(Pre-Romantic Period)라고 부르며, 이 시대는 신고전주의에서 낭만기 문학 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시대구분은 1660년부터 1798년까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의 말기에 낭만기전 시대가 있다. 이 시대의 시인들은 점점 신고전주의적인 색채를 벗어나, 낭만시의 특징을 띄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시인들로서는 다음 시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단지 이들의 이름만을 열거하기로 한다.

제임스 톰슨 James Thomson(1700~1748), 토마스 그레이 Thomas Gray(1716~1771), 윌리엄 콜린스 William Collins(1721~1759), 윌리엄 쿠퍼 William Cowper(1731~1800), 토마스 채터튼 Thomas Chatterton(1752~1770), 에드워드 영 Edward Young(1683~1765), 토마스 퍼시 Thomas Percy(1729~1811), 마크 에이컨사이드 Mark Akenside(1721~1770), 조셉 워튼 Joseph Warton(1722~1800), 토마스 워튼 Thomas Warton(1728~1790), 조오지 크래브 George Crabbe(1754~1832), 로버트 버언즈 Robert Burns(1759~1796).

신고전주의 시대(The Neoclassical Period)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660~1700는 왕정복고 시대(The Restoration), 1700~1745는 오거스틴 *Augustan* 시대(또는 Pope의 시대), 1745~1798은 감수성의 시대(The Age of Sensibility) 또는 존슨 Johnson의 시대라고 부른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는 다음과 같다.

존 드라이든 John Dryden(1631~1700), 존 번연 John Bunyan(1628~1688), 윌리엄 콩그리브 William Congreve(1670~1729), 다니엘 디포우 Daniel Defoe(1660~1731), 새뮤얼 버

틀러 Samuel Butler(1612~1680), 매슈 프라이어 Matthew Prior(1664~1721), 존 게이 John Gay(1685~1732), 조나단 스유프트 Jonathan Swift(1667~1745), 조셉 애디슨 Joseph Addison(1672~1717), 서어 리처드 스틸 Sir Richard Steele(1672~1729), 알렉산더 포프 Alexander Pope(1688~1744), 새뮤엘 존슨 Samuel Johnson(1709~1784), 제임스 보스웰 James Boswell(1740~1795), 에드먼드 버어크 Edmund Burke(1729~1797).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의 문학적인 특징은 낭만기의 특징과 대비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가정은 인간은 그의 능력과 재능에 있어서 제약 속에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켜야 하며, 문학에 있어서도 상상력은 인간의 제한을 넘는 것으로 여겨져서, 기피되었다. 인간 밑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으며, 인간의 위에는 천사와 신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위계 질서 속에서 인간 모두에게 공통되고 보편 타당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예의 바르고, 정확한 예절이 중시되었다. 인간은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감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적절한 법칙(*decorum*)이라든지, 연극에서는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삼일치의 법칙”(Three Unities)이 존중되었다. 시에서의 *decorum*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heroic couplet이다. 이 시형식을 가장 즐겨 쓴 시인은 알렉산더 포프인데, aa, bb, ... 의 각운을 갖는 iambic pentameter이다. 이 시 형태가 나타내는 바는, 우리가 사는 우주와 세계는 일련의 법칙에 지배받는 폐쇄 조직(closed system)이며, 인간도 또한 제한되고 폐쇄된 존재라는 인간관의 표출이다.

(2) 문학은 하나의 기예(art)이며, 천재(genius)나 상상력의 발산이 아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제한적인 존재로 보는 철학적인 사조는, 문학에 있어서도 창의성이나 천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랫동안 같고 닮은 문학의 기예를 중히 여겼다.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작가들은 로마 시대의 고전 작가들로서, 이 고전 작가들은 후세의 작가들이 모방해야 할 규범이었다. 그러므로 문학은 창작이나 실험이 아니라, 단지 고전 작가들의 모방에 그쳤다. 시는 인간 생활의 모방, 즉, 충실한 묘사이며, 문학의 목적은 주로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작품의 형태 또는 시적 형태를 잘 같고 닮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으며, 문학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3)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의 형태는 풍자(satire)였으며, 윗트(wit)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는 감성보다는 지성, 그것도 미세한 분별력에 기초한 재미가 값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포프는 “진정한 윗트란 흔히 생각은 되지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새뮤엘 존슨 Samuel Johnson은 더 나아가서, 윗트란 “자연적인 것인 동시에 새로운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윗트란 우리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인 것의 정제된 상태

이며, 이는 곧 균형과 조화를 지상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4) 이 시대의 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공미와 인위적인 것에 많은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런던은 문학의 중심이었고, 그러므로 문학의 주제도 대부분 도시적인 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적으로 세련되고 잘 닦여진 문학이 좋은 문학으로 여겨졌다. 시골이나 전원예 대해서 이 시대의 문인들은 냉소적이었으며, 전원도 도시가 확대된 형태의, 즉 마차가 다니고 안락하게 길들여진 전원이라야만 이들의 구미에 맞았다. 이 시대에는 생각이 명확한 것이 장점으로 여겨졌고, 개인의 독창성이나 천재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Ⅲ. 영국 낭만시의 특징

워즈워쓰와 코울리지가 함께 엮은 『서정 담시집』 *Lyrical Ballads*(1798)은 낭만시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햇불이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신고전주의 시대의 시 전통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풍의 시들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시집의 제 2판(1800)과 제 3판(1802)의 서문은 실로 새로운 시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문은 워즈워쓰와 코울리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로 워즈워쓰의 의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코울리지는 뒤에 『문학평전』 *Biographia Literaria*(1817)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낭만시의 본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코울리지는 낭만시의 탁월한 문학이론가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문학에 대한 많은 생각은 지금까지도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정 담시집』의 제 2판(1800)과 제 3판(1802)의 서문 *Preface*에는 여러가지 혁명적인 선언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기서 우선 혁신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보자. 그 첫째는 “보통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incidents and situations from common life*을 일부러 시의 소재로 택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위에서 신고전주의의 시의 특색을 간단히 소개할 때 우리가 이미 보아 온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 문학 전통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이러한 신고전주의 문학 전통의 정면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도시의 사교계의 생활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주로 씌여졌으므로 일상생활을 다룬 작품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알렉산더 포프의 “던시어드” *The Dunciad*와 “머리칼의 강탈” *The Rape of the Lock*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소재는, 전자의 작품은 우둔함을 소재로 하여 이를 풍자한 것이며, 후자는 아라벨라 퍼머어양 *Miss Arabella Fermor*의 머리칼을 피터 경 *Lord Peter*이 강제로 자른 것이 소재로 돼 있다. 이 둘의 경우 모두 일상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상류의 사교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소재이다.

『서정 담시집』의 서문에 나타난 두번째의 혁신적인 요소는 시에서 쓰이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선언이다. 신고전주의에서는 보통사람의 말과 시에서 쓰이는 시어는 확연히 구별되었으며, 시에서 쓰이는 시어는 인위적으로 다듬어지고 극도로 세련된 인공물이었다. 이처럼 사람의 손 때가 묻고 정제된 언어를 버리고, 인공과 문명의 때가 묻지 않고 보통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일상어를 시어로 쓰고져 한 것은 획기할 만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시에서의 언어의 문제는 사실상 현대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낭만시는 현대시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시 운동의 시초인 것이다.

낭만시의 특징은 위에서 든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음에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상상력의 회복

낭만시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상상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있다 하겠다. 신고전주의 문학에서는 상상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오히려 문학에서 기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문학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닌 그저 열심히 갈고 닦은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지던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상상력은 오히려 문학의 저해 요소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개인의 독자성과 창조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상상력은 바로 문학 자체의 생명력이며 생성원리가 되었다. 어느 의미에서는 낭만시인들은 이러한 상상력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갖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들은 또 자신들의 시 속에서 자신들의 상상력의 정의를 정리하거나, 또는 구현했다.

워즈워쓰는 시적인 상상력의 생명을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서정 담시집』의 서문에서, “시는 힘찬 감정의 자연적인 넘쳐남”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sup>3)</sup>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시적 상상력은 시인 각자의 내부에서 용솨음쳐 나오는 상상력의 발로라고 보았다. (물론, 시의 창작과정은 이와는 다르게 이러한 감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라 앉아 앙금으로 남아서, 이를 마음 속에서 다시 재생하여 최초의 감정과 같은 감정이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시를 쓴다고 하였다). 워즈워쓰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강력하고 자발적인 감정이 바로 시의 원천이 된다고 본 점에 그의 낭만시인으로서의 위대함이 있다.

낭만시의 이론적 틀은 워즈워쓰 보다는 코올리지에 의하여 구축되었다. 그의 『문학평전』에서 우리는 낭만주의 문학의 이론이 형성되었음을 본다.

그는 우선 상상력을 기계적인 상상력 *fancy*와 창조적인 상상력 *imagination*의 둘로 나눈

3) M.H. Abrams,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ire*, 4th ed., Vol. 2, p.173.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본문에 N.A. II.라고 약칭을 쓰고, 그 뒤에 페이지 숫자를 쓰겠다.

다. 그 첫번째는 생명력이나 창조력이 없는 상상으로서 그는 이것을 “fancy”라고 부른다. 이는 전혀 창의성이 결여된 형태의 상상력으로서, 융통성이 없이 규칙에만 얽매여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언제나 둘이 된다는 공식화된 지능의 형태라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인간과 로봇을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로봇은 주어진(프로그램된) 명령의 수행 이외에는 그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imagination”이라면, 로봇이 갖고 있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측면을 갖는 상상력이 “fancy”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인간이 갖는 상상력은 자발적이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며, 창조적이어서 생명력이 있는 반면, 기계인 로봇이 갖는(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능력은 피동적이고, 기계적이며,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생명력이 없다.

그는 창조적인 상상력 imagination을 두 가지로 좀 더 세분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코올리지가 말하는 “제 1 상상력”(the primary imagination)인데 이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perception) 능력이다. 그는 인간의 인식능력이란 무한한 신의 창조능력이 인간의 유한한 지적능력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어째서 이처럼 창조적인가 하는 것을 몇가지 쉬운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칠판에 개를 스케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세하게 개의 모든 세부적인 면을 그리지는 않는다. 눈, 코, 귀, 입, 다리, 꼬리 등을 대강 그린다. 더구나 우리가 그린 것은 단지 한쪽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스케치에서 빠진 것을 우리의 인식능력은 모두 채워 넣어서 이러한 스케치가 나타내는 것이 개라고 우리는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다. 그 이외에도 우리의 인식이 창조적인 상상력의 측면을 갖는 예는 무한하다.(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든다면, 필자가 흘려서 못 알아 볼 정도로 원고지에 쓴 글씨들을 인쇄할 때 인쇄공이 판별하는 것도 코올리지가 말한 제 1 상상력의 예라 할 수 있다.)

“제 2의 상상력”(the secondary imagination)은 제 1의 상상력과 큰 차이가 없다. 제 2의 상상력은 재창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서, 문학에서 필요한 상상력이 여기에 든다. 코올리지는 이 제 2의 상상력은 워즈워스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있다”(vital)고 말한다. 이처럼 워즈워스나 코올리지 둘 다 똑같이 상상력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그 생동력을 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코올리지는 더 나아가서 상상력은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특징들을 조화하거나 화합시키는 것” the balance or reconciliation of opposite or discordant qualities (N.A. II, p.40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코올리지는 상상력을 아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보았다. 상상력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서로 연관 없는 외계의 사물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특징까지도 포용하여 조화시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이다.

코올리지는 상징 symbol을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상상력이 갖는 합성력과 포용력을 원용



하고 있다.

상징은 개체 속에 種이 드러나 있고, 種에 屬의 특성이 드러나 있으며, 屬에 생물의 보편적인 특성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찰나적 [시간적]인 것 속에 영원한 것이 드러나 있다. 상징은 그 자체 속에 상징을 상징으로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체를 항상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은 전체를 내보이면서도, 전체라는 통합체 속에 일부분으로 살아 있어, 전체를 드러낸다.

a Symbol...is characterized by a translucence of the Special in the Individual or of the General in the Especial or of the Universal in the General. Above all by the translucence of the Eternal through and in the Temporal. It always partakes of the Reality which it renders intelligible; and while it enunciates the whole, abides itself as a living part in that Unity, of which it is the representative.

*The Staresman's Manual* (N.A. II, p. 411)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코올리지는 상징에서 이러한 상상력의 통합작용을 본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알레고리와 대비해 본 상징에 대한 코올리지의 견해로서, 알레고리에 대한 것은 위의 인용에서 제외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레고리가 바로 *fancy*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기계적이며, 단순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상징은 그와 반대로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며, *imagination*과 같이 창조적이고 상반되고 모순되는 특질을 동시에 포용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코올리지가 쓴 *Special, General* 등의 용어는 생물학에서 쓰는 *Species* (種), *Genus*(屬)의 형용사임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개체는 어느 種(*Species*), 그리고 어느 屬(*Genus*)에 속한다. 그러나 種이니 屬이니 하는 분류 개념은 연속개념으로서 단절되거나 배제된 개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며, 그 상위 개념인 屬 그리고 種에도 똑같이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코올리지의 상징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영원과 시간(찰나)이라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대비개념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영원이 내포돼 있고, 영원속에 시간이 내포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코올리지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키이츠의 경우 이것은 모순어법(*oxymoron*)과 공감각(*synaesthesia*)으로 나타난다. 먼저 모순어법의 예를 보자.

모순어법이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두 개의 다른 말을 같이 쓸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즐거운 고통”(pleasing pain)과 같은 것이 이 경우라 하겠다. 키이츠는 삶 자체가 이러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의 통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키이츠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다음에서 보는 “즐거움이어 오라, 그리고 슬픔이어 오라”(Welcome joy, and welcome sorrow)라는 시에서 잘 볼 수 있다.

즐거움이어 오라, 그리고 슬픔이어 오라.

레테(Lethe, 회합신화에 나오는 죽은 후에 건넌다는 망각의 강)의 풀이어, 헤르메스(Hermes)의 깃털이어,